

영향 변인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유행 몰입도, 연령,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명희 · 김미영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The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 and Possession of Apparel Color Preference by Influential Factors -Focusing on fashion involvement, age, body size and body-cathexis

Myung Hee Lee · Mi Young Kim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2. 6. 21. 접수)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general & apparel) color preference and possession of apparel color preference(POA) by influential factors(fashion involvement, age, body-size and body-cathexis). We collected data from 303 females in the ages of 20's and 40's living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fashion involvement was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coordinating fashion involvement, opinion-leading fashion involvement, and innovating fashion involve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ashion involvement groups in the color preference and POA. Als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s and POA by ages and body-size were found. But in the analysis based on body-cathexis, no noticeable variance between different groups were found.

key words: Color Preference, Possession Of Apparel Color Preference, Fashion Involvement, Age, Body Size, Body-Cathexis; 색채 선호도, 의복색 소유도, 유행 몰입도, 연령, 신체 치수, 신체 만족도

I. 서 론

색채 선호도는 지역이나 민족, 연령, 제품, 유행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성격이나 교육 수준, 소득 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용훈, 1987; 김영인 · 문영애 · 한소원, 2000; 이명희 · 김미영, 2001). 색채 선호도는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이룩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취미 판단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색채 선호도에는 지역이나 민족, 연령, 제품, 유행 등 여러 영향 변인에 따라 공통되는 어떤

한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조정미, 1999).

국내에서 이루어진 색채 선호도와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선원(1990)은 연령과 계절, 품목, 조희련(1993)은 성별과 지역, 김현주(1998)는 계절과 품목, 김영인 · 문영애 · 한소원(2000)은 계절과 성별, 품목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이처럼 계절이나 성별, 연령, 품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의복과 관련이 깊은 유행, 신체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색채 선호도

의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명도와 채도가 색채 선호도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Radeloff, 1991), 명도와 채도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예가 드물어 색채 측정의 타당성 문제가 제시되었다. 김영인·문영애·한소원(2000)은 색채 선호도의 조사는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조사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명희·김미영(2001)은 색채 선호도를 측정 하는 다양한 방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색채 선호도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색채 선호도의 개념도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의 차이 없이 연구되고 있어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제1보)(김미영, 2002)에서 기존에 혼용되어진 색채 선호도의 개념을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로 세분화하고 의복색 소유도를 조사하여 일반색과 의복색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제2보)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색채 선호도를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유행 몰입도, 연령,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로 선정하고 이들 영향 변인에 따른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색채 선호도의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호도 측정 방법은 칼라 칩과 색상명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색상은 명도와 채도를 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4가지 톤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또 각 톤 별로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연구

1. 유행 몰입도와 색채 선호도

유행 색채는 색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행 색채와 색채 선호도의 관계에 대해 성희진(1994)은 현대에는 색채 선호도가 종래의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요인보다는 유행 색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유행 색채에 대한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면 유행 색채 선구집단과 유행 색채 모방집단으로 나뉘어진다. 유행 색채 선구집단은 유행에 민감하며 독창적이고 뛰어난 색채 효과를 좋아하는 반면, 유행 색채 모방집단은 지나치게 튀는 것을 싫어하며 보수적이고, 선구집단에 비해 단순한 색채를 선호한다(김용훈, 1987). 즉, 유행 색채 선구집단은 유행의 변화에 민감

하고 대체로 유행 몰입도가 높은 집단이 이에 속하며, 유행 색채 모방집단은 유행의 변화에 둔하고 유행 몰입도가 낮은 집단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는 유행 몰입도가 높은 집단은 대체로 유행 색채에 민감하고, 독창성있는 색채 효과를 선호하는 반면, 유행 몰입도가 낮은 집단은 유행 몰입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보수적인 색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색채 선호도는 유행 몰입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행 몰입집단의 특징에 대해 구자명·이명희(1997)는 20대 초반의 여성일수록 유행에 흥미가 많고, 유행 몰입도가 높으며, 특히, 예능계의 경우 다른 전공보다 유행 몰입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영선(1986)은 구매하는 의복 수도 많았고, 의복 당 지출되는 비용도 많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볼 때, 색채 선호도는 유행 몰입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령이나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유 의복 색채 역시 유행 몰입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행 몰입의 차원은 유행혁신성과 구매시기, 유행 흥미, 유행 의사전달, 유행 관심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행 혁신 정도, 유행 의사전달의 정도에 따라 유행 몰입의 차원을 패션 혁신 몰입과 패션 의견선도 몰입으로 나누고자 한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패션 연출 몰입 요인을 추가시켜 유행 몰입을 패션 혁신 몰입과 패션 의견선도 몰입, 패션 연출 몰입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색채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연령과 색채 선호도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에 대해 김용훈(1987)은 인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색계에서 한색계로 그 선호 경향이 바뀌어가는데 이는 인간이 점차 성숙해감에 따라 장파장의 색채에 대한 선호가 단파장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석재은(1993)은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대, 30대, 40대 모두 일차적으로 계절에 따른 색채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50대와 60대는 계절과 관계없이 분홍이나 연지, 밝은 보라와 같은 색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정삼호(1990)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색채 선호도와 의복 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 간의 비교연구를 한 결과, 투피스의 경

우 20대는 카나리아색, 연한 하늘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30대는 초록, 연한 하늘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짙은 보라색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2000)은 20~50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선호의복색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갈색, 파랑, 노랑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남성과 달리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유채색을 더 선호하고 무채색을 덜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2000)은 20대 여성 정장 선호색을 조사한 결과, 봄에는 베이지, 여름에는 흰색, 가을에는 갈색, 겨울에는 검정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류숙희, 김보연(2001)은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한 의복색 선호도 조사에서 20대는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파랑, 노랑의 순으로 선호하는 반면, 30대는 노랑, 무채색, 파랑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자켓 색으로 20, 30대 모두 무채색, 노랑, 파랑의 순으로 선호했으나, 빨강의 경우는 30대보다 20대가 더 선호하여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연령은 색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와 색채 선호도

신체 만족도(Body Cathexis)에 대해 Horn(1975)은 신체 만족도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에 대한 개인의 만족, 불만족의 느낌으로 인종과 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의복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Kaiser(1985)는 신체 만족도가 의복 스타일의 선택과 의복에 대한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황진숙·나영주(1999) 역시 신체에 대한 만족은 의복 스타일 선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Kwon과 Parham(1994)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뚱뚱하다고 느낄 때와 날씬하다고 느낄 때의 의복 선택 습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뚱뚱하다고 느낄 때에는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의복 기능을 추구하고, 날씬하다고 느낄 때에는 좀 더 패션의 기능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신체 만족도와 색채 선호도와의 관계에 대해, 양명희(1983)는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독특한 디자인이나 색을 선택하여 개성 표현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또 이미경·이인자(1985)는 한국 여대생들은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의복의 위장 기능으로서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나 색을 피하려하나, 미국 여대

생들은 전반적으로 밝은 색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밝은 색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 만족도와 스타일 및 색채 선호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로 볼 때 신체 만족도에 따라 색채 선호도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 만족도는 신체 치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신체 치수 역시 색채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 만족도와 색채 선호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신체 치수와 색채 선호도와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영향 변인으로 선정하여 신체 만족도 및 신체 치수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유행 몰입도와 연령,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로 설정하고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때 색채 선호도는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 1. 유행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힌다.

1) 유행 몰입도의 차원을 밝히고, 각 차원별로 연구대상자를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으로 분류한다.

2) 각 유행 몰입도 차원별로 고·저몰입 집단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 문제 2. 연령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 문제 3.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밝힌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설문지 응답 방식을 통해 2001년 9월 24일~10월 2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와 40대 이상의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대와 40대 이상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20대와 40대 이상 집단간에 선호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백선원, 1989: 정삼호, 1990: 석재은, 1993). 설문지는 총 340부를 배포하여,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303부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요인 분석, Cronbach' α , t-test, 일원분산분석,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색채 선호도의 경우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로 분류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그 밖에 의복색 소유도를 묻는 문항과 유행 몰입도, 연령,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를 묻는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유행 몰입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이연희(1996)와 이현정(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서 채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 치수는 의복 치수에 따라 55호, 66호, 77호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신체 만족도는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만족도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 조사 대상 색채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제시한 색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칼라칩 제시 방법을 사용하였고 각 색채를 4가지 톤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톤으로 제시할 경우 각 색채의 명도와 채도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가지 톤은 톤의 차이나 느낌을 구분해주는 대표적인 4가지 톤으로 전문가 집단이 선정하였다. 칼라칩은 칼라칩과 색채명이 동시에 제시되어 색채명만 제시하였을 때 정확한 색상을 떠올릴 수 없는 문제점과 칼라칩만 제시하였을 때 제한된 색채만을 인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의 색채는 예비조사시 선호하는 색채를 자유기술하게 한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적합한 색채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면셀의 기본 10색과 의복 색채로 자주 사용되는 갈색계열과 무채색계열을 포함해 총12가지의 색채 계열을 선정하였다.

다음은 다시 톤 별 색채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기 위해 vivid톤, pale톤, dull톤, dark톤을 톤명칭과 함께 칼라칩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4가지 톤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육안으로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계열로 선정하였다. 이 때 각 톤별로 면셀의 기본 10색상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유행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1) 유행 몰입도 차원 및 몰입도 집단의 분류

유행 몰입도의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제시된 문항 13개를 요인분석하여 총 3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실시된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맥스 직교회전을 실시하였고, Cronbach' α 신뢰도 검증 방법을 실행하였다. 유행 몰입도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제1요인은 패션 연출에 관한 문항, 제2요인은 패션정보 전달의 정도에 관한 문항, 제3요인은 패션 혁신의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각각 패션 연출 몰입도,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 패션 혁신 몰입도라 명명하였다.

이상의 각 요인을 패션 연출 몰입도,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 패션 혁신 몰입도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각각 고몰입과 저몰입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이렇게 분류된 집단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패션 연출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패션 연출 몰입도에 따르는 색채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일반색 선호도의 경우 빨강계열, 파랑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 등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빨강계열, 파랑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에서 모두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각 계열의 색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강계열이나 자주계열은 강렬하면서도 눈에 띄는 색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나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의 경우 저몰입 집단보다 빨강계열이나 자주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는 주황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무채색계열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각 색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황계열이나 노랑계열은 의복색 선호도의 평균이 3.0 수준으로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높지 않은 편으

<표 1> 유행몰입도의 요인분석결과

| 요인명 | 문항 내용 | 요인부하량 |
|--|--|-------|
| 요인1 패션 연출 몰입도 | 목걸이나 귀걸이,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 .775 |
| | 의복과 어울리는 신발, 모자, 가방 등을 착용한다. | .744 |
| | 멋으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기타 머리 관리 및 스타일 연출에 관심이 많다. | .678 |
| | 모자나 선글라스, 안경 등을 패션 제품으로 즐겨 사용한다. | .651 |
| | 나는 향수를 자주 사용한다. | .600 |
| | 의복과 어울리는 양말이나 벨트를 착용한다. | .463 |
| 고유치: 5.275 설명비율(%): 40.578 누적 변량(%): 40.578 Cronbach's α : .7918 | | |
| 요인2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 | 나는 패션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 .818 |
| | 의복 유행에 대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알고 있다. | .794 |
| | 친구들은 나를 의복 유행에 관한 좋은 조언자로 생각한다. | .679 |
| | 패션잡지를 읽거나 패션쇼를 구경하는 일이 자주 있다. | .619 |
| 고유치: 1.504 설명비율(%): 11.570 누적 변량(%): 52.148 Cronbach's α : .8030 | | |
| 요인3 패션 혁신 몰입도 | 유행에 관한 잡지를 소홀히 보지 않고 내 옷을 최신 유행에 맞추려한다. | .808 |
| | 새로 나온 스타일을 구입하여 입어보는 일을 즐긴다. | .770 |
| | 나는 새로운 유행 의복을 먼저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속한다. | .558 |
| 고유치: 0.981 설명비율(%): 7.549 누적 변량(%): 59.696 Cronbach's α : .7690 | | |

<표 2> 패션 연출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 선호도 및 소유도 | 색채 계열 | 집단 | 저몰입 집단 (n=150) | 고몰입 집단 (n=153) | t-value |
|--------------|-------|----|-------------------|-------------------|-----------|
| | | 집단 | | | |
| 일반색선호도 | 빨강계열 | | 3.173 | 3.392 | -2.151* |
| | 파랑계열 | | 3.640 | 3.894 | -2.321* |
| | 남보라계열 | | 3.540 | 3.849 | -2.929** |
| | 보라계열 | | 3.460 | 3.751 | -2.543* |
| | 자주계열 | | 3.273 | 3.490 | -2.063* |
| 의복색선호도 | 주황계열 | | 2.793 | 3.039 | -2.217* |
| | 노랑계열 | | 2.733 | 3.045 | -2.860** |
| | 연두계열 | | 2.980 | 3.248 | -2.424* |
| | 남보라계열 | | 3.266 | 3.594 | -2.813** |
| | 보라계열 | | 3.200 | 3.535 | -2.809** |
| | 무채색계열 | | 3.940 | 4.307 | -3.343** |
| 의복색소유도 | 빨강계열 | | 2.193 | 2.467 | -2.390* |
| | 노랑계열 | | 1.840 | 2.105 | -2.375* |
| | 연두계열 | | 1.980 | 2.250 | -2.388* |
| | 남보라계열 | | 2.302 | 2.585 | -2.298* |
| | 보라계열 | | 2.100 | 2.411 | -2.752** |
| | 자주계열 | | 2.250 | 2.647 | -3.085** |
| | 무채색계열 | | 3.798 | 4.248 | -4.115*** |
| | 갈색계열 | | 3.733 | 3.973 | -2.149* |

*p<.05 **p<.01 ***p<.001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의복색으로 많이 선호하지는 않으나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 연출에 관심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더 선호한다고 하겠다. 또한 연두계열이나 남보라계열, 보라계열의 경우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색채계열이므로 유행에 민감한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채색계열의 경우는 무채색계열이 갖는 세련된 이미지와 도시적인 이미지로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더 선호할 것이므로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패션 연출 몰입도에 따르는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빨강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 무채색계열, 갈색계열 등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빨강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 무채색계열, 갈색계열에서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의복색 소유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소유도가 낮은 빨강계열, 노랑계열, 자주계열을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더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노랑계열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소유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때,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노랑계열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소유도가 높은 무채색계열과 갈색계열도 패션 연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더 소유하고 있었다. 또 현재 유행 색채계열인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보다 더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패션 연출 몰입도는 빨강계열, 주황계열, 노랑계열, 자주계열 같이 일반적으로 선호도와 소유도가 낮은 색채계열과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같은 유행 색채계열의 선호도와 소유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또한 파랑계열, 무채색계열, 갈색계열 같이 일반적으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색채계열의 선호도와 소유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3)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3>. 분석결과 일반색 선호도의 경우, 남보라계열과 보라계열, 자주계열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패션 의견 선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는 파랑계열과 남보라계열, 보라계열과 무채색계열 등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패션 의견 선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에 비해 파랑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무채색계열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보라계열과 보라계열은 현재 유행 색채계열이므로 유행에 민감한 패션 의견 선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표 3>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 선호도 및 소유도 | 집단 | 저몰입 집단 (n=134) | 고몰입 집단 (n=169) | t-value |
|-----------|-------|----------------|----------------|----------|
| | 색채 계열 | | | |
| 일반색선호도 | 남보라계열 | 3.552 | 3.810 | -2.417* |
| | 보라계열 | 3.432 | 3.745 | -2.713** |
| | 자주계열 | 3.253 | 3.485 | -2.189* |
| 의복색선호도 | 파랑계열 | 3.231 | 3.497 | -2.278* |
| | 남보라계열 | 3.283 | 3.550 | -2.261* |
| | 보라계열 | 3.216 | 3.491 | -2.272* |
| | 무채색계열 | 4.000 | 4.224 | -2.010* |
| 의복색소유도 | 덜 톤 | 3.350 | 3.627 | -2.435* |
| | 노랑계열 | 1.828 | 2.089 | -2.321* |
| | 보라계열 | 2.089 | 2.390 | -2.637** |
| | 자주계열 | 2.298 | 2.574 | -2.117* |

*p<.05 **p<.01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파랑계열이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는 일반적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색채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톤의 경우 의복색 선호도에서 덜 톤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패션 의견 선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에 비해 덜 톤을 의복색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에 따르는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랑계열과 보라계열, 자주계열에서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패션 의견 선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에 비해 노랑계열과 보라계열, 자주계열의 의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노랑계열과 자주계열의 경우 평균 점수가 각각 2.089, 2.574로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소유도가 낮은 편이나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에 비해 노랑계열과 자주계열의 의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 색채계열인 보라계열도 평균 점수 2.390으로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소유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보라계열의 의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의견 선도 고몰입 집단은 저몰입 집단 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파랑계열, 무채색계열

과 현재 유행 색채계열인 남보라계열과 보라계열을 더 선호한다고 하겠다. 또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노랑계열, 자주계열과 유행 색채계열인 보라계열의 의복을 더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는 파랑계열, 무채색계열 같이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색채계열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같은 유행 색채계열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또한 의복색 소유도의 경우, 노랑계열, 자주계열 같이 일반적으로 소유도가 낮은 색채계열과 보라계열 같은 유행 색채계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4) 패션 혁신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및 의복 소유도의 차이

패션 혁신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간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4>. 분석결과 일반색 선호도의 경우 주황계열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황계열의 경우 일반색 선호도가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주황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는 주황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자주계열, 갈색계열에서

<표 4> 패션 혁신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 선호도 및 소유도 | 집단 | | t-value | |
|-----------|-------|----------------|---------|----------------|
| | 색채계열 | 저몰입 집단 (n=139) | | 고몰입 집단 (n=162) |
| 일반색선호도 | 주황계열 | 2.876 | 3.092 | -2.056* |
| 의복색선호도 | 주황계열 | 2.748 | 3.055 | -2.764** |
| | 노랑계열 | 2.741 | 3.024 | -2.589* |
| | 연두계열 | 2.956 | 3.240 | -2.559* |
| | 자주계열 | 3.036 | 3.271 | -2.018* |
| | 갈색계열 | 3.582 | 3.858 | -2.228* |
| 의복색소유도 | 주황계열 | 1.597 | 1.818 | -2.370* |
| | 노랑계열 | 1.848 | 2.087 | -2.111* |
| | 연두계열 | 1.877 | 2.310 | -3.875*** |
| | 청록계열 | 1.870 | 2.166 | -2.656** |
| | 남보라계열 | 2.231 | 2.627 | -3.204** |
| | 보라계열 | 2.071 | 2.407 | -2.954** |
| | 자주계열 | 2.158 | 2.701 | -4.259*** |
| | 갈색계열 | 3.733 | 3.956 | -1.978* |

*p<.05 **p<.01 ***p<.001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보다 주황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자주계열, 갈색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황계열, 노랑계열, 자주계열은 무난하지 않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색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의복색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최신유행을 선도하고 남과 다른 개별성을 추구하는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의 경우 저몰입 집단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패션 혁신 몰입도에 따른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황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청록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 갈색계열에서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황계열, 노랑계열, 연두계열, 청록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자주계열, 갈색계열에서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소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황계열, 노랑계열, 청록계열의 경우는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유도가 낮은 편이나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주황계열과 노랑계열, 청록계열을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 색채계열인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은 선호도에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의복색 소유도에는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갈색계열도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 보다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패션 연출 몰입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의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은 저몰입 집단 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소유도도 낮은 주황계열, 노랑계열, 자주계열과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소유도도 높은 갈색계열, 유행 색채계열인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연두계열등을 더 선호하고 소유한다고 하겠다. 즉 패션 혁신 고몰입 집단은 저몰입 집단에 비해 다양한 색채를 선호하고 소유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패션 혁신 몰입도는 주황계열, 노랑계열, 자주계열 같이 일반적으로 선호도와 소유도가 낮은 난색계열과 갈색계열 같이 일반적으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색채계열, 또한 연두계열, 남보라계열, 보라계열 같이 유행 색채계열의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유행 몰입도 차원에

서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보다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유행 몰입이 높은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에 비해 의복의 디자인 및 색채에 대한 흥미가 높으므로 각 색채에 대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몰입 집단이 저몰입 집단에 비해 의복색 소유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영선 (1986)의 연구에서 유행 몰입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유하는 의복수도 많고 지출비용도 많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2. 연령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연령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대 집단과 40대 이상의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5>. 분석결과, 일반색 선호도는 빨강계열과 노랑계열, 파랑계열과 남보라계열, 자주계열과 무채색계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빨강계열과 노랑계열의 경우는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일반색으로 빨강계열과 노랑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계열과 노랑계열의 경우 일반색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빨강계열과 노랑계열이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40대 이상 집단 보다 20대 집단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파랑계열과 남보라계열의 경우 20대와 40대 이상 집단에서 모두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보라계열의 경우는 현재 유행 색채계열이므로 구자명·이명희(1997)의 연구결과와 같이 유행에 민감하고 흥미가 많은 20대 초반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남보라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채색계열의 경우 역시 20대와 40대 이상 집단에서 모두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는 빨강계열과 노랑계열, 연두계열과 녹색계열, 청록계열과 파랑계열, 그리고 무채색계열 등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계열과 노랑계열의 경우는 일반색 선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표 5> 연령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 선호도 및 소유도 | 집단 색채계열 | 20대 | 40대 이상 | t-value |
|-----------|------------|---------|----------|-----------|
| | | (n=153) | (n=150) | |
| 일반색선호도 | 빨강계열 | 3.385 | 3.180 | 2.019* |
| | 노랑계열 | 3.372 | 2.966 | 3.919*** |
| | 파랑계열 | 4.098 | 3.433 | 6.406*** |
| | 남보라계열 | 3.921 | 3.466 | 4.376*** |
| | 자주계열 | 3.503 | 3.260 | 2.318* |
| | 무채색계열 | 3.660 | 3.246 | 3.385** |
| | 비비드 톤 | 3.620 | 3.268 | 3.401** |
| | 페일 톤 | 3.960 | 3.463 | 4.826*** |
| 의복색선호도 | 빨강계열 | 3.196 | 2.906 | 2.528* |
| | 노랑계열 | 3.000 | 2.780 | 2.000* |
| | 연두계열 | 2.960 | 3.273 | -2.833** |
| | 녹색계열 | 2.437 | 2.758 | -2.675** |
| | 청록계열 | 2.333 | 2.698 | -3.005** |
| | 파랑계열 | 3.601 | 3.153 | 3.931*** |
| | 무채색계열 | 4.575 | 3.666 | 9.192*** |
| | 페일톤 | 3.725 | 3.214 | 4.208*** |
| 의복색소유도 | 다크톤 | 3.594 | 3.233 | 2.902 |
| | 주황색계열 | 1.522 | 1.925 | -4.425*** |
| | 노랑계열 | 2.163 | 1.778 | 3.482** |
| | 연두계열 | 1.810 | 2.429 | -5.712*** |
| | 녹색계열 | 2.261 | 2.644 | -3.362** |
| | 청록계열 | 1.771 | 2.300 | -4.909*** |
| | 파랑계열 | 3.117 | 2.473 | 5.063*** |
| | 보라계열 | 2.071 | 2.446 | -3.327** |
| | 자주계열 | 2.322 | 2.583 | -2.014* |
| | 무채색계열 | 4.424 | 3.617 | 7.899*** |
| 갈색 계열 | 4.052 | 3.653 | 3.620*** | |

*p<.05 **p<.01 ***p<.001

색채계열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편이나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의복색으로 빨강계열과 노랑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두계열과 녹색계열, 청록계열은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의복색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계열과 청록계열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연령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녹색계열을 의복색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대 이상 집단의 경우 연두계열을 보라계열과 같이 높게 선호한 것은 기존에 40대 이상 집단이 주로 보라계열을 선호한다는 연

구(백선원, 1989; 정삼호, 1990; 석재은, 1993) 결과와는 비교되는 것으로 아마도 유행 색채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 파랑계열과 무채색계열은 일반색 선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파랑과 무채색계열을 각각 의복색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채색계열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특히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의 경우는 먼저 일반색 선호도는 비비드 톤과 페일 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색 선

호도는 페일 톤과 다크 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색 선호도는 비비드 톤과 페일 톤을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높게 선호하였으며, 의복색 선호도는 페일 톤과 다크 톤을 역시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에서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황계열과 노랑계열, 연두계열과 녹색계열, 청록계열과 파랑계열, 보라계열과 자주계열, 무채색계열과 갈색계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황계열과 노랑계열은 전반적으로 소유도가 낮은 편이나 주황계열의 경우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랑계열은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계열과 녹색계열, 청록계열의 경우는 선호도가 높은 40대 이상 집단이 의복색 소유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보라계열과 자주계열 역시,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의복색 소유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계열의 경우, 선호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의복색 소유도에 있어서는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파랑계열과 무채색계열, 갈색계열의 경우는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파랑계열과 무채색계열, 갈색계열의 의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채색계열과 갈색계열의 경우 20대와 40대 이상 집단에서 모두 다른 색채계열에 비해 소유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20대 집단은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파랑계열, 무채색계열을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선호하고 소유하며, 모든 집단에서 선호도와 소유도가 낮은 노랑계열도 더 선호하고 소유한다고 하겠다. 특히 무채색계열의 경우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백선원(1989)의 연구에서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색채는 검정으로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무채색을 매우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겠다. 또한, 40대 이상 집단은 20대 집단에 비해 대체로 연두계열이나 녹색계열, 청록계열을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달리 40대 이상 집단에서 연두계열의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난 것은 유행색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

측된다. 보라계열의 경우는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의복색 소유도는 여전히 4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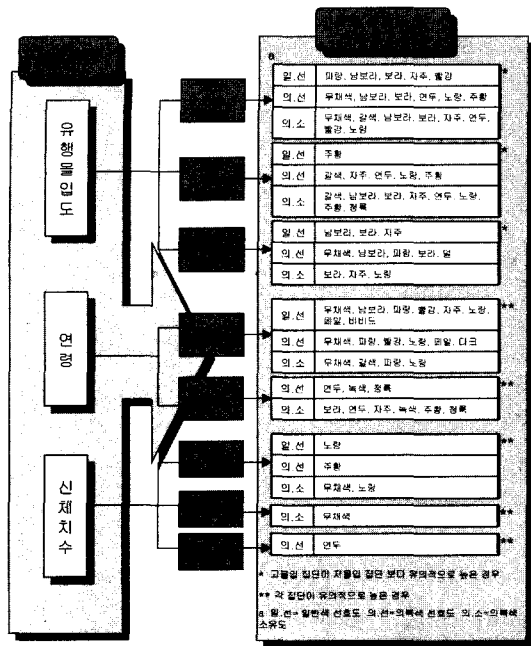
3. 신체 치수와 신체 만족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 및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신체 치수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을 의복 치수에 따라 55호 이하 집단과 66호 집단, 77호 이상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색 선호도의 경우 노랑계열은 전반적으로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55호 이하 집단($m=3.372$)이 77호 이상 집단($m=3.000$)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 선호도의 경우 주황계열은 전반적인 선호도는 낮은 편이나 55호 이하 집단($m=3.117$)이 66호($m=2.790$)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두계열은 77호 이상 집단($m=3.303$)이 55호 이하($m=2.925$)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치수에 따른 색채별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랑계열은 55호 이하 집단($m=2.138$)이 77호 이상 집단($m=1.712$) 보다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채색계열은 77호 이상 집단($m=3.646$)이 55호 이하 집단($m=4.148A$)과 66호($m=4.118$) 집단 보다 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계열의 경우 전반적인 소유도는 모두 높은 편이나 77호 이상 집단이 55호 이하집단과 66호 집단보다는 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신체 치수는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랑계열과 주황계열, 무채색계열은 치수가 작은 집단이 큰 집단 보다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두계열은 치수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추측된다. 즉, 치수가 큰 집단에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의 결과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은 연두계열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으므로 치수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 보다 연두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신체 만족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그림 1> 영향 변인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 만족도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만족도에 따라 색채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흐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유행 몰입도와 연령, 신체 치수는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영향 변인에 따라 선호도와 소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행 몰입도, 연령,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색채 선호도의 다양한 영향변인들을 규명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행 몰입도의 차원을 분류한 결과, 유행 몰입도 차원은 패션 연출 몰입도,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 패션 혁신 몰입도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각 차

원을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의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고몰입 집단은 저몰입 집단 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소유도가 높은 색채계열을 더 선호하고 소유하며,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소유도가 낮은 색채계열도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 색채계열도 더 선호하고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행 몰입도 차원별로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패션 연출 몰입도와 패션 혁신 몰입도는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낮고, 소유도가 낮은 색채계열과 현재 유행 색채계열의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패션 의견 선도 몰입도는 일반적으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무난하고 차분한 색채계열과 현재 유행 색채계열의 선호도와 소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랑계열은 전반적인 선호도와 소유도는 낮은 편이나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랑계열, 무채색계열은 모든 집단에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편이나 20대 집단이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계열은 전반적인 선호도가 낮은 편이나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두계열도 4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행 색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보라계열의 경우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의복색 소유도는 여전히 40대 이상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톤은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 보다 비비드 톤과 페일 톤, 다크 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 치수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랑계열과 주황계열은 전반적으로 선호도와 소유도가 낮은 편이나 신체 치수가 작은 집단이 큰 집단 보다는 더 선호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두계열은 치수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신체 만족도에 따른 색채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연령층과 품목에 따른 색채 선호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 색채를 떠올릴 때 그 계절에 맞는 계절색을 가장 선호하는 색채로 연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점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이상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명, 이명희. (1997). 여대생의 의복 충동구매 차원과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유행몰입과 유명상표 선호도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1), 35-45.
- 김미영. (2002). 일반색 · 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937-945.
-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 (2000). 의복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성장 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4(1), 3-14.
-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영인, 추선형, 강죽형. (2000). 아동복의 선호 이미지와 선호 색채 이미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0(1), 23-32.
- 김영인, 추선형, 조민정. (1999). 아동복 색채선호에 대한 조사연구. *복식*, 50, 23-32.
- 김용훈. (1987). *색채 상품 개발론*. 청우. 117-149.
- 김용훈. (1998). *색채 메카니즘*. 현문사. 110-113.
- 김현주. (1998). *여중생의 의복선호색과 색채 연상어 조사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태. (1998). *중등학생의 색채기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숙희, 김보연. (2001). 성인 남성의 의복색채 선호와 색채 관심에 관한 연구 -연령, 성격, 피부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2), 308-318.
- 박소희. (1996). *20대 남녀의 의복색채선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선원. (1990).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재은. (1993). *성인 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 선호도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희진. (1995). *현대 한국 여성 양장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의 기호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명희. (1983). *청소년 근로 여성의 의복선택 행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김미영. (2001). 기존의 색채연구유형과 선호색채연구의 분석. *복식*, 51(3), 33-49.
- 이미경, 이인자. (1985). 성인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1), 9-16.
- 이연희. (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 (1986). 유행몰입과 정보원 사용. *충남과학 연구지*, 13(28), 251-256.
- 이은영. (1997). *패션 마케팅(제2판)*. 교문사. 138-146.
- 이현정. (1997). *의복색 선호를 중심으로 한 남자 대학생의 패션 관심도 및 성 역할 태도의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삼호. (1990). 성인 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간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 논총*, 4, 55-74.
- 정충영, 최이규. (1999).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제3판)*. 무역경영사.
- 조희련. (1993). *색채선호도와 이미지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학생의 반응과 기존이론과의 비교-*.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미. (1999). 지역 특성에 따른 성인 여성의 복식색채 선호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9(1), 129-143.
- 준이찌 노무라. (1997). *김미지자 편역, 색의 비밀*. 보고서. 42-71.
- Charlene Line. (1993). Psychology of Color: Similarities Between Abstract and Clothing Color Preferenc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57-65.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35.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57-167.
- Kwon, Y., & Parham, E. 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